

'12.06월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문화포럼 개최결과

문화여가정책과

□ 포럼 개요

- 일 시 : 6. 26(화), 14:00 ~ 15:30 (1시간 30분)
- 장 소 :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지하 1층 제 1~2회의실
- 참 석 : 문화부 직원 및 문화예술관계자 등 40여 명
- 주 제 : “문화 예술, 낯은 도시에 매력을 입힌다.”
- 초청강사

- 박 찬 응 (스톤엔워터Stonenwater 대표)

- * 1987-1989 안양시민미술학교 운영, 2002 안양 석수시장에 보충대리공간 스톤엔워터 설립, 2004 안양천 프로젝트 진행, 2005, 2006 석수시장 프로젝트 진행, 2010 석수아트프로젝트 예술 감독 역임.
- 만안하세요?! : 2010 석수아트프로젝트 보고서 공저(2011)
- 1985 세종대학교 회화과 졸업.

- 주 진 홍 (대흥동립만세 조직위원회 위원장, 극단드림 대표)

- * 2005 극단드림 창단, 2007 소연극 전용 극장 드림아트홀 개관
- 2008 - 현재까지 대흥동립만세 축제 기획 및 진행에 참여.

○ 제공서적

- “나의 아름다운 철공소 : 예술과 도시가 만나는 문래동 이야기”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 주요 결과

<박 찬 응 | 스톤엔워터 대표>

시장 속 예술을 꿈꾸는 석수아트프로젝트 : 예술하러 시장에 오세요.

- 시장 속에서 흥정하듯 자연스럽게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참여 행위를 통해 일반인이 주체가 되어 예술가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 또한, 대형마트에 밀려 쇠락한 재래시장에 활기를 주고자 합니다.
- 반경 500M 오직 시장 안에서만 들을 수 있다는 무단정치 라디오 방송국의 라디오 방송에는 시장에 들르는 모든 이가 일일 DJ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위 예술가 권승찬이 예술가와 일반인의 교감을 위해서 기획한 퍼포먼스입니다.

빈 공간을 창작의 공간으로 : 3개월 간의 시장 내 빈 점포에서 진행된 작가 레지던시와 마지막 날의 오픈 스튜디오 진행을 통해 변모되는 공간.

- 2007 석수시장 프로젝트에서는 재래시장 빈 점포에 3개월 간 예술가가 입주하게 하였으며 입주가 끝날 때 스튜디오를 공개하여 그 작품을 공개하여 감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4개국 10명의 작가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재현(한국), 진시우(한국), 패트릭 잠봉(독일), 닉 스프랏(뉴질랜드), 타바라 구마르넷(미국) 등이 있습니다.
- 다른 전시와는 다르게 관객이 참여하는 퍼포먼스 위주의 전시로 진행되었습니다. 작품 또한 일반인과 시장 상인이 주인공입니다. 전시 공간, 작품, 관객이 삼위일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작가들

은 주로 석수 시장 상인들과의 소통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작품에 대한 평가 역시 열린 공간 주민들의 몫입니다.

- 우리들 삶의 터전에 결합하고 함께하는 예술이야말로 진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석수 시장에서 5년을 버텨왔습니다.
- 비워둔다는 것은 그 공간을 쓸모없게 버려두는 셈입니다. 시장에서 특히 한 골목에 빈 점포가 많은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여기에 창작을 하는 예술가가 들어온다면 공간을 새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발견해 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외국인 작가의 참여 : 이방인, 낯선 세계와의 소통의 기회.

- 2005 제 1회 석수시장 프로젝트 open the door, 2006 제 2회 석수시장 프로젝트 가가호호 등 크고 작은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담당해 왔습니다. 나아가 2007 제 3회 프로젝트에는 외국 작가도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 외국 작가들은 자신들이 외국에 와서 느끼는 낯선 감정, 부유하는 느낌을 물 속에서 부유하는 외계인의 모습을 묘사하는 퍼포먼스로 표현하거나(패트릭 잠봉),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물건(장판)에 관심을 보여 이 물성을 활용하여 작업을 하였습니다.(닉 스프랏)
- 패트릭 잠봉의 퍼포먼스는 외계에서 온 것같은 자신을 시장에서 매일 보며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과정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자신의 물 속에서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든 개의치 않습니다.
- 닉 스프랏은 실용성과 기능성을 중시하는 작품을 제작하는데, 이는 시장의 본질적 기능과 맞닿아 있는 셈입니다. 그는 한국의 온

돌문화에서만 볼 수 있는 장판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자유자재로 변형시켜 작업합니다. 또한, 3개월 간의 시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위에서 보고 들은 것들로 작업을 합니다.

- 외국의 작가들이 우리의 시장문화를 경험하고 자신의 색깔로 작업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재래시장이 보다 다양한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바랍니다. 외국 작가들에게 석수 시장에서의 3개월은 특별한 경험이었고 그 경험은 생활과 맞닿은 작품이 됩니다.
- 작가를 선정할 때에 이미 시장에서의 사람들과의 소통을 중시하였으며, 작가들 또한 말이 안 통하는 타국에 와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소통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낯설어하던 주민들도 이들에게 점차 맘을 열게 되었습니다.
- 주민들은 평생 나와는 다른 세계가 나의 삶의 터전과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가들은 한국인의 끈끈한 정을 또한 발견하였습니다.

한국의 끈끈한 정을 재발견 : 다시 오고 싶은, 재래 시장이 곧 예술 시장으로 그 성격이 확대되는 가능성 또한 발견하게 하는 계기.

- 타바라 구마르넷은 3개월 간의 석수 시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냈는데, 이에서 주로 한국인들의 끈끈한 단결된 관계를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상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 손님이 오면 옆 가게의 상인이 와서 가게를 봐 주는 것이 그러합니다.
- 1회, 2회 때의 석수 시장 프로젝트와의 차별점은 장기간의 체류를 통하여 작가들 스스로가 소통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 또한 주체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예술가와 내가 많이 다

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웃 집 아저씨처럼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 오픈 스튜디오 끝난 다음 날 귀국을 앞둔 작가 닉 스프랏에게 건너편 이웃 떡집 아주머니는 선물을 합니다. 그녀에게 닉은 3개월 간 체류하는 외국 젊은이일 뿐입니다. 그녀는 3개월 간 그를 아들처럼 돌봐 주었습니다. 이는 작가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합니다.
- 진시우는 자신의 작품에 출연해 노래를 불러준 작가분들에게 자신의 작업을 담은 CD를 선물합니다.
- 시장은 광장의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기능 이외에 소통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예술시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재래시장이 아닌 새로운 재래시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을 공공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계기 : 1980년대 질풍노도의 시기 1990년대의 좌절의 시기를 겪고 2000년 유럽에서 그 단서를 얻다.

- 비슷한 활동이 반복되지만 매 행사가 저에게는 새로운 의미를 지닙니다. 제 스스로 제가 하는 행동(프로젝트)에 대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 와서 행정전문가 분들 앞에서 제가 한 행동을 소개하는 과정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 일은 크지 않은데도 이렇게 강연하도록 초청받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 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1960년 3월 3일 생인데, 생일이 정말 좋아서 10년 단위로 도표를 그려 보다가 저의

프로젝트와 주요 인생의 사건들이 10년 단위로 배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50년을 계속해서 예술가로서만 살아 왔습니다. 직함판 하나 만들지 못하고 뭐하고 있는지 자책감들이 때가 많고 행동을 의심하며 살지만 제 인생이 헛되지 않다고 자기 스스로 최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 1960년 출생, 화전민의 아들로 촌에서 살았습니다.
- 1970년 10세 안양으로 이사, 도시를 처음 접하고 그에 대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양천은 죽음의 하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양천에 한 번 들어갔다가 후회하였음에도 아직까지도 안양에서 살고 있습니다.
- 1980년 20세 제 인생의 격변기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문화예술이 혁명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최종 목적지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체 게바라(Che Guevara, 1928-1967)를 접하면서 목표 지향적으로, 단위(기간)를 끊어서 문화 예술을 도구로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 1990년 30세 좌절의 시기, 역사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짧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했던 지점의 오류를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이 셋이 있는 등 생계의 문제 때문에 돈 버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돈을 버는 것과 자본주의적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즐겼습니다. 1997년 IMF 위기 이후로 아직도 못 갚은 2억의 빚을 안게 됩니다.
- 2000년 40세 사업을 접고 유럽으로 9개국 22개 도시를 한 달 동안 여행합니다. 여행 중 마을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데, 잘츠부르크(Salzburg)의 작은 골목, 마을을 보았으며 훈데르트 바서

(Friedensreich Hundertwasser, 1928-2000)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이 곧 마을이 될 수 있다고 느껴 귀국 후 2002년 스톤앤워터를 만들게 됩니다.

30년 마을 조성 장기 계획 수립 : 적은 시간 동안에 단발성 행사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 창조적 서식지 조성을 위한 노력.

- 스톤앤워터를 2002년에 만들면서 이러한 사업을 30년 동안 지속해서 진행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마을 만들기는 30년을 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개념입니다.
- 2010년 50세가 되어서 10년 정도 즉 마을 만들기 사업이 1/3 정도 진행하였는데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에 작가들의 흔적과 작품들로 이루어진 문화예술컨텐츠가 이 마을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제가 새롭게 생각하는 개념이 있는데 에코뮤지엄, 창조적 서식지(Creative Habitat)개념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하는 활동을 통해 지금 살고 있는 창조적인 곳으로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석수 시장의 현재 : 뉴타운 개발 계획에 부딪침, 이에 맞추어 그를 비워나가는 노마드 행사를 실천.

- 뉴타운 개발 계획이 2005-2007년 경 수립되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에 투쟁하여 무리하게 진행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국제 레지던시(Residency)를 진행하는데 이는 비우는 작업의 일환입니다. 30년 동안 지속되는 마을은 현실적 상황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석수시장은 없어질 것이라는 체득하면서 가볍게 놀 수 있는 노마드와 맥을 함께하는 국제 레지던시를 기획하여 많은 작가들을 불러 옵니다. 이를 통해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림이

그려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새가 날아들었다가 체류하다가 다시 떠나는 그런 그림을 상상합니다.

- 2020년에 이곳이 아파트촌으로 변한다면 여기에서 계속 문화예술 활동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약속한 것이 30년이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30년을 버티겠다는 마음을 버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래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한 방안 모색 : 자립적 프로젝트를 위한 계획 수립과 10년간의 프로젝트의 전망과 성과

- 2002년부터 10년간 이 프로젝트는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형국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서식지는 지원금에 기대지 않고 할 수 있게 하고 싶어서 후원금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사업의 성격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 1930년대의 건물로 이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어 개발을 안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전통시장 활성화하기 위한 기획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와는 상관없이 20~30년간 빈 점포 내에 예술가가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게 하여 그 공간을 즐기게끔 하고 있으며, 30년간의 꿈도 꾸고 또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기획하고 싶은 희망도 아직 있습니다.
- 10주년 기념전이 석수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방문하시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와서 보고 느끼는 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진홍 | 대흥동립만세 조직위원회 위원장, 극단드림 대표 >

인사 및 대흥동 소개 : 대전의 원도심, 도심공동화 현상이 극심한 곳.

- 박찬웅 대표님이 우리(대흥동립만세)가 가고자 하는 길을 앞서서 가고자 하는 것 같고, 저와 생각과 철학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덧붙일 말이 있을까 싶은데, 지역에서 예술인들 몇 명이 작업을 하고 있는 대흥동립만세 사업단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불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연극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연기로 시작을 하였으나 남 앞에 서는 것을 잘 못하여 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게 되니 말이 잘 나올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해 주기를 바랍니다.
- 대흥동은 대전의 원도심으로, 1970년대-1990년대 초반까지 걸쳐 대전의 중심지였습니다. 선화동, 은행동에는 충남도청이 있으며, 이전에 대전광역시청, 중구청이 있던 곳입니다. 또한, 공연장, 갤러리, 상업지역이 몰려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둔산동 정부청사지역으로 관공서와 상권이 이동하게 됩니다. 충남도청은 올 연말 홍성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도심공동화가 매우 심하게 진행되는 곳이 바로 대흥동입니다.

인사 및 대흥동 소개 : 대전의 원도심, 도심공동화 현상이 극심한 곳.

- 대흥동립만세 손그림 축제 포스터를 통해서 대흥동 각 축제 공간과 문화 예술 거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대흥동은 대전 주민의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 저는 1983년도 고등학생 때 극단에 입단하였는데, 당시 연극이 주로 이루어진 곳이 대흥동 가톨릭 문화회관입니다. 이곳은 모든 공

연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연초에 모든 극단들이 모여서 일정을 짜고 홍보하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문화 예술 활동의 중심지이자 저의 활동지역입니다.

- 신도시가 개발되었으나 예술인들은 아직도 대흥동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료 등의 경제적 이유로 판단됩니다. 대전에는 2000년대 중반까지 연극전용 소극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구수가 대전의 반인 청주와 전주에도 소극장이 5~6곳 정도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2007년 저는 대흥동에 연극전용 소극장을 만들어 연극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대흥동립만세 설립 계기 : 즉흥적인 제안에 의한 자유로운 행사

- 이 시기 친구의 제안에 의해 원도심에서의 축제를 기획하게 됩니다. 대전문화연구원으로부터 몇 백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아서 2006년-2007년 원도심문화축제를 2년간 진행하였습니다.
- 2년 지원 후 지원이 끊기게 되어 친구는 축제 진행을 못 하겠다고 하였으나 저는 이 축제를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2007년 경 같은 생각을 하는 예술인들 몇 명을 만나서 대전 지역에서 축제를 해보자는 이야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흥동립만세의 출범과정입니다.
- ‘대흥동립만세’라는 축제 이름은 우여곡절 끝에 축제 날짜가 임박하여 즉흥적인 제안에 의해 지어진 것입니다. 대한독립만세를 패러디하여 대흥동과 연결시켜 대흥동립만세로 지었습니다.

2008 제 1회 대흥동립만세 : 경제적 자립, ‘돈 없이 해보자!’

- 대흥동립만세의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또한 즉흥적인 대안으로 '돈 없이 해 보자'라는 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 우리(대흥동립만세)가 돈이 하나도 없으니 교통비도 본인이 충당하고 식비도 본인이 해결하여 와서 자유롭게 출연해 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원하는 행사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돈 없이 하자'를 목표로 삼자, 위원장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돈 있는, 사회적인 인사를 모실 필요가 없게 되어, 문화계에서 상징적인 분을 위원장으로 모시기로 합니다. 문화 예술의 중심지였고 그러한 공간의 밑집지역의 한 가운데에 있는 가톨릭 문화회관의 관장님을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 2008년에 제 1회 축제가 시작됩니다. 40여개 팀이 출연합니다. 외국 공연팀도 서너 팀 있고 외국인 전시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영어 강사를 통해 유학하는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였습니다.
- 결산을 해 보니 경비를 929,500원 쓴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면 포스터 후면 리플렛으로 쓰인 포스터에 대한 1,000,000원 안 되는 정도의 인쇄비는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비용으로 들지는 않았으나 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 이벤트, 조명 장비 등의 기술력, 노하우, 인력 지원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그 가치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조명 감독이 현장에 와서 실제로 장비를 나르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창피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였다고 얘기를 전하였습니다.
- 돈 없이 한다가 가장 큰 모험이었습니다. 정산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돈을 쓰라며 지원하는 돈이면 받겠다는 일종의 배짱과 같은 마음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긴 합니다.

2009 제 2회 대흥동립만세 : 새로운 운영 구조 창출, '수직적 위계 구조를 없애자.'

- 2회째 때에는 "수직적 위계 구조를 없애자"를 를 모토로 삼았습니다. 위원회, 사무국 등의 조직구조를 없애고 진행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유지되는 연극, 미술, 음악, 기획 각 분야의 대표들이 모여서 원탁회의의 구조 체계를 시도하였습니다.
- 1회 때는 가톨릭문화회관 관장님이 위원장, 제가 실행위원장을 맡아 하였으나 2회 때는 이 구조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사의 취재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지 모르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발하는 등, 문제점 발생의 단초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대흥동립만세의 특징 1 : 누구나, 무엇이든,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축제

- 대흥동립만세의 특징입니다.
 - (1) 누구나 참여 가능한 축제입니다. 유치원 아이들부터 노인분들까지, 아마추어나 전문가나 누구든지 이 축제에 참여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참여 가능한 구조로 가져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여 신청을 인쇄물 발행을 위해 그 마감기한을 정하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도 누구든지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 자리와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 자전거 동호회 분들이 자신들이 할 일을 찾아서 대흥동립만세 깃발을 자전거에 꽂고 시내를 돌며 홍보 활동을 합니다.

- 학생들이 대흥동립만세 유니폼을 입고 우산에다가도 그림을 그려 홍보하도록 합니다.
- 아마추어 음악 프로젝트 그룹 '신경 쇠약 직전의 그녀들'을 조직하여 음악 공연을 하겠다며 공연에 참여합니다.
- 중년 성악 모임이 자발적으로 성악 연주회 참여합니다.

(2) 무엇이든 가능한 축제입니다. 예술의 전 장르는 기본이고, 체육 활동, 강연 그 외의 재미있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 카페에서 도교 사상 전문가가 도교 사상 강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인라인 스케이팅 동호회의 길가에서 공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대전 부르스 라는 막거리 주점에서 대전 부르스라는 노래 부르기 경연대회를 가졌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팀들이 대전 부르스만 부르며 심사위원은 대전 부르스 주점 사장님이었습니다.
- 길에다 탁구대를 놓아서 탁구대회를 개최합니다.
- 라면 끓여 먹기 대회, 고스톱 대회, 어스름한 골목길에 칸막이를 쳐서 연인들의 키스 대회 등의 개최에 대해서 논의하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공존하는 행사입니다.

(3) 어디에서든 가능한 축제입니다. 예술이 그 동안에는 전문화된 곳에서 행해졌던 관행을 깨고 기술적인 연출적인 관행과 완성도를 희생하더라도 시행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 찻집, 카페의 앞마당에 의자를 깔고 클라리넷 연주회를 합니다. 모기가 몰아서 혹은, 옆 술집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들려와서 집중도는 떨어지지만 풀벌레 소리 나는 곳에서의 연주회는 그만의 운치가 있었습니다.

- 평생학습관의 앞마당에서는 '허클베리 핀'의 공연하였습니다.
- '노상'이라는 맥주집에서 색소폰 연주를 합니다.

대흥동립만세의 특징 2 : 파격의 추구, 자원봉사자 '골목대장' 의 적극적 참여.

- 대흥동립만세의 특징은 파격입니다. 재정의 독립성, 예술의 형식적인 파괴, 전통적인 조직의 파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대흥동립만세 프로그램은 조직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합니다. 해마다 '골목대장'이라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행사를 만들어나가고 꾸려나가는 방향으로 자원 봉사자들의 참여를 촉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부터는 골목대장의 기획단들이 모든 행사를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은 기획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흥동립만세의 사업 운영 : 게스트 하우스 운영, 아트프리마켓 진행, 외부 사업단 조직

- 현재 대흥동립만세는 '산호여인숙'이라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합니다. 공간적인 거점이 필요하겠다 싶어 이 지역의 여인숙을 얻었습니다. 30~40년 정도 된 건물인데, 10년 정도 빈 채로 있던 곳입니다. 카드로 현금 대출 받아서 계약금 마련하여 얻었고, 1층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하고 2층은 숙소로 운영합니다. 대전에서는 모험인 것이, 대전은 특별히 관광객, 여행객이 없으므로 게스트 하우스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힘듭니다. 따라서 예술인들이 외지(대전)

로 올 때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로 삼았습니다.

- 아트프리마켓이라고 아트의 개념을 많이 넣은 베틀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흥동립만세가 실체가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외부의 조직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대흥동립만세 사업단을 만들어 수익 사업을 하게 하여 수익금을 축제에 돌리게 하였습니다.

대흥동립만세의 문제점 : 그들만의 리그, 폭넓은 관객의 참여 촉구 필요, 체계적 조직의 필요성.

-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 (1) 그들만의 축제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재정적 독립을 표방하다 보니 시, 구, 공공기관을 적으로 여기는 구성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관과 민은 동반자적 관계로 관이 이해를 못할 때에는 관을 설득하여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 일부 구성원들이 매우 관에 적대적인 태도로 임할 때가 있어서 외부에서 이 축제를 그들만의 축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관협력체제를 공고히 갖추는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2) 폭넓은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관심 촉구가 가능한 홍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3) 조직이 없다 보니까 축제를 긍정적 의도이든, 부정적 의도이든 공격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조직의 문제가 곧 시정되어야 할 시급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최 세력이 없는 조직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변화나

현실적 타개책을 생각 중입니다.

대흥동립만세의 미래 : 대전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람.

- 미래에는 대전 대흥동 지역이 재미있는 동네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는 떠오르는 재미있는 축제가 없습니다. 부산 영화제, 춘천 인형극제 등이 있는데 반하여 도시의 상징적인 행사가 없습니다. 이전에 한밭 문화제와 같은 관주도의 지속적이지 않은 행사만이 이루어졌던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대흥동립만세가 지속적인 재미있는 대표적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질의·응답 >

Q : 박찬웅, 주진홍 두 분 강연자께서는 지자체의 주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동네를 재미있게 해보자라는 취지로 열성적 행사를 기획하셨는데 진행되는 도중에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실제 지자체에서도 원도심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에 당면하여 이러한 문제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박찬웅) 이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거버넌스(governance)의 문제를 논하고 싶은데, 얼마 전 인천 문화재단에서 민간문화예술연대의 민관 거버넌스 사례에 저를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의 경우는 민관 거버넌스의 성공이라기 보다는 실패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주는 거부감이 있는데, 거버넌스가 실체는 '통치'의 개념인

데 이를 마치 '협치'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사회학자들이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을 찾아 본 것으로 판단컨대, 거버넌스는 '통치'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과 관의 힘이 동등할 때 진정한 거버넌스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관이 힘이 크고 민간이 자금을 대한 손을 벌리는 형태를 거버넌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관에서는 민을 이용하여 관의 행위를 홍보, 치장하는 데 이용하고자 하는 형편입니다.
- 저는 이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안양에는 관에서 하는 안양 APA 프로젝트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있는데 40억 정도의 자본이 투입되는 3년간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시초는 민에서 했던 안양천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관에서 정착시켜서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 안양천프로젝트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생태적이고 공동체적인 예술 축제의 본래의 제안에서 벗어나 거대한 조형물 프로젝트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 SNS를 통해 반대의견을 표명해도 개인의 헛소리로 치부되고 반영되지 않는 형편입니다.
- 관에서는 4~5년 동안에 단기간의 시각적 성과를 보여주고자 하고 저는 평생 직업으로 삼고 있는 등의 서로의 입장이 다르므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간 거버넌스라고 안양시에 시민단체연석회의가 있는 것으로 민간협력으로 보이는 모임이 있으나 힘이 동일하게 공동주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민간 거버넌스의 정확한 사례나 모델이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주진홍) 저도 대전 지역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대전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전문화재단 사업공고에 대흥동 지

역 대중문화예술특허구 사업이라고 2억원 규모의 사업이 나왔습니다. 이에서는 프린지 페스티벌, 토요일상설무대, 아트프리마켓 이 3가지를 꼭 해야 할 것으로 삼았는데, 이는 이미 대흥동립만세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 본래의 민간 주도의 행사를 똑같이 진행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현장에서 일하는 행사자들의 의견 수렴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 올해에는 민간이 같이 가자는 제안이 재단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트프리마켓에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도중 보니까 대전시가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시에서 예산이 5억 정도 책정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아마추어든 전문가든 원도심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는 것으로 오늘(6월 26일) 대전문화재단에서 공고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대전원도심기획단에서 대흥동립만세 운영단에 와서 현장의 이야기를 수렴해 갔었는데, 그러고 나서 똑같은 기획으로 (베껴) 낸 것으로 보입니다.
- 저는 민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행사를 관에서 뒷받침해주는 형태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행정 체계 때문에 불가능한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예술가들은 분위기만 조성되면 무보수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은 돈대로 쓰면서 인심을 잃는 관주도의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과 서로 코드를 맞춰가면서 민에서 먼저 시작한 행사를 관에서 뒷받침해주는 형태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Q : 대흥동립만세는 자금 없이 진행하였다고 하였고, 스톤엔워터는 지속적

으로 지원금을 받아 행사가 진행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이긴 하지만 이 행사에 참여하는 직업 예술가와 기획자 등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때 이들의 경제적 가치는 평가 절하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 자발적 참여 형태에 의해서 행사에 예술인들이 경제적 보상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일하는 게 당연하다는 풍조가 생기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 (주진홍)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행위자가 아니라 기획자였다면 이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나 저희 자체가 행위자들이므로 '내가 가니까 너도 가자' 라는 참여 권유의 형태가 이제까지는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 가능할까를 고민합니다. 예산 없이 진행하는 것이 항구적으로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규모로 간다면 가능하겠지만 자의 반 타의 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 예산 없이 진행하는 것이 무리가 있습니다. 예술인들에 대한 처우 문제도 있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언제까지나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 축제가 예술성과 대중성의 두 가지 요소를 다 잡기를 바라는데, 예산이 없다보니 자꾸만 대중 참여적인 부분만 비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 예산을 아예 완전히 받지 말자고 한 것은 아니고 자립할 수 있을 내공을 다지기까지는 지원을 받지 말고 그 후에 지원을 받는 것이 어떤가하는 내부적 논의도 있었습니다.
- 작년부터 마을 기업으로 신청하여 일부 기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도 사례비로 드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많이 고민 중입니다.
- (박찬웅) 저는 좀 다릅니다. 처음 시작 시 제가 하는 출판사를 통

해 지원금을 충당해서 500만원을 받다가 2000만원, 3000만원, 1억 이렇게 점차 지원 받는 단위가 커졌습니다. 또한, 어느 순간부터는 지원금이 줄고 새로운 일을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 당면하게 됩니다.

- 이렇듯, 지원금에 목매는 상황이 되는 처지이긴 합니다만, 저는 돈이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경제적 가치, 작은 공동체 내에서 돈을 만들어 내는 것 그게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 '돈 없이 한다' 라기 보다는, 돈을 우리 스스로 만든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가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기부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전에 기업의 관심 없는 의무적 기부 풍조와는 달리 요즘은 기업에서 먼저 스스로 찾아와 제안하기도 합니다. 로비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비영리로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헛갈려 하는데, 비영리는 영리보다 훨씬 영리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의 로비와 돈 버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고서는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 지원금이 나올 때 예술가들은 그 행사와 기금의 취지에 동의하기보다 '나한테 얼마 줄 것인가' 라는 데에 더 관심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홍동립만세 프로젝트에서처럼 열정을 가지고 일하면서 최소의 경비를 충당하고 보상을 받아야지 자신의 경제적 가치를 매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나는 어느 정도 가치의 예술가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미술시장에 맞는 논리이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예술공동체에서 지향하는 바

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식 자체를 바꾸는 노력을 예술가들과 함께 공동체 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Q :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일을 왜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재미가 있어서 한다, 하던 일이니까 한다, 예술에 대한 개인적인 이상의 성취를 위해서 한다, 예술을 통해 바깥으로 가시적으로 보이게끔 이 마을을 바꿔보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이다.’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찬웅) 아까도 말씀 드렸듯, 예술에 대한 저의 목표 때문입니다. 예술가로서 살면서 예술로 사회를 바꿔보고자 하는 생각이 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하지만 이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듯합니다. 이 둘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저에게 끊임없이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저의 위치를 자각시킵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은 찾지 못한 것 같고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주진홍) 저에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웅 대표님과 달리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보다는, 제가 좋으니까 주변에 같이 하는 사람들도 이 일이 즐거우니까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구성원들과는 다른 저만의 생각이자 개인적인 욕심인 것 같은데요, 한국의 축제 등의 행사를 보면 관주도의 행사가 많은데 특색 있는 축제가 많지 않습니다. 축제를 하면 생색내기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비유하자면 잔칫집에 갔을 때 못사는 집에서는 빛을 내서라도 거하게 차리는 경우가 있고 잘사는 집은 평소 차리듯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외국의 축제를 보면 축제가 과하거나 일부러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우리 축제도 내부적으로 그 안에 경제 구조를 갖추고 축제를 통해서 입장권 수익 등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갖출 수 있으면 합니다.

- 또한 조직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축제이기를 희망합니다. 공연장 섭외를 해서 거기에서 다양한 공연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유료화되어 관객들이 돈을 내고 이를 관람하고 이를 통해 약간이나마 이익을 낼 수 있었음 합니다. 다양한 우리만의 축제의 모델을 만들어서 대표할 수 있는 축제, 특색 있는 축제를 만들어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오히려 독자적 문화예술이 발전하지 못한 부분을 역으로 이용하여 특색 있는 콘텐츠를 통해 서울의 관람객을 끌어들이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정리 >

- 박찬웅, 주진홍 두 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어느 시인의 ‘실향’이라는 시를 떠올립니다. 분당으로 차를 몰고 가면서 실향민의 감정을 토로하는 시였습니다. 비판적 의미로 도시인들은 실향민이라 할 수 있는데요, 동네라는 곳은 매우 소중한 공간이며 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실험장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공공미술에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중한 실천을 하고 있는 이 두 분의 활동의 의의가 더욱 큰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끝//